십자가 만들기(3)

쓰롤란 십자가

출석하고 있는 새로운교회(담임목사; 한 홍)는 창립한지 2년여 정도 되었다. 그래서 매년 8개월 기간의 LCS(Life Coaching School)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교육하고 있다. 나도 올해 초 2기로 입학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 필수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했다. 국내와 해외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캄보디아 남성 1차 팀으로 참가하여 10일 동안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글 윤성진, 사진 이영달

다양한 구성원들

우리 조는 열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다.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사업하는 사람이 셋, 대학교수도 셋, 두 명은 기업 컨설팅, 나와 막내는 예술 종사자였다. 대부분 전문직이어서 그런지 개성들도 강하였다. 열 번의 준비 모임에서 내가 제안한 십자가 만드는 일이 다수의 찬성으로 메인 사역으로 채택되었다. 팀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만든 십자가는 '쓰롤란 십자가'라고 명명했다. '쓰롤란'은 캄보디아 말로 '사랑, 또는 사랑합니다'의 뜻으로 훈련 중에 우리가 지은 이름이었다.

공동작업을 구상하며

캄보디아 작은 마을 단위의 집은 마치 높은 원두막 같다. 1층은 기둥만 있고 주거 공간은 2층에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의 범람으로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뱀 같은 동물들을 방어하는 등 자연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구조다. 평소 가족 거실처럼 사용되는 1층이 예배 장소였다. 처소교회라 불리기도 하는데, 현지 청년 사역자를 목회자로 세워가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방 교회인 셈이다. 십자가 제작 사역은 이런 곳에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예배 시간에 정면에 세워두고, 그 앞에서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현지 선교사님도 좋은 생각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조각가인 나에게 할당된 몫은, 현지 사정에 잘 맞고 우리가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구상하는 일.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를 많이 만들었었기에 계속 스케치하며 생각했지만 좋은 구상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한편 이 일은 나에게 매우 흥미로운 면이 있었는데, 바로 공동작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은 대체로 혼자서 구상하고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모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십자가가 만들어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무를 소재로 한 십자가 만들기

여러 주 동안 캄보디아에 세울 십자가를 구상하면서 떠나지 않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들 십자가의 테마가 이 구절에 꽂혀있었던 것이다. 재료는 단기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철재가 떠올라, 철봉에 못이 많이 박혀있는 십자가 형태를 구상했다. 그런데 막상 준비 모임에서 스케치를 보이며 설명하다보니, 제작 과정에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고만 하고 더 좋은 안을 찾아야겠다고 얘기하던 중, 앞에 있던 이영달 형제가 생뚱맞게 "나무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다. 그 때만해도 나는 짧은 시간에 완성하려면 철로 용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무라니 무슨 엉뚱한 소리'라는 말이 나올 뻔 했는데, 순간 하나의 상이 떠올랐다. 각목을 안에 대고 합판을 잘라 붙인 만든 십자가가 떠오른 것이다. 기가 막힌 재료와 형태로, 정말이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었다. 쾌재를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는 휴지에다가 말이다. 보여주니 모두들 좋아하고 그게 좋겠다 하였다. 그 안으로 결정된 데는 십자가가 아름답다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제작 과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다.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

첫째, 우리가 십자가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은 4일뿐이었다. 완성하여 전달하고 와야지, 흉내만 내다 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자면 재료 구입이나 도구 운반 등이 쉬워야 한다. 각목과 합판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나무를 자르고 못이나 피스를 박는 아주

1. 십자가 스케치　2. 함께한 팀원들. 뒷줄 좌로 부터, 김성민, 황경환, 김 선교사 아들 형찬이, 우근태, 홍명식, 김성현, 캄보디아 청년들, 앞 줄 좌로 부터 필자, 정중모, 김승욱, 이상민

기초적인 공구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둘째, 열명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동 작업의 성격에도 맞고, 작업의 분담도 용이했다. 누군가 설계도를 그려 주면, 한편에선 톱질하고, 이어서 두 세 사람이 고정시키면 된다. 더욱이 나는 캄보디아 출발 3주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와서 100M를 걷기가 어려웠다. 직접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만 해야 되는 형편이었다.

셋째, 각목과 합판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속이 빈 형태라 무겁지 않으니, 이동하며 사용해야 하는 현지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역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

우리는 나무와 합판만 현지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다른 모든 장비는 한국에서 가지고 가기로 했다. 드릴과 톱, 실톱(Jig Saw), 못과 망치, 볼트 등등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220cm 높이의 십자가 두 개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 톱질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작업 방법이나 도구 사용법을 일러 주었는데,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기능이 좋은 조수들과 일을 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전심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시키는 나에게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많았고, 눈치 보기에 바쁜 그들은 정해진 양을 적당히 하는 식이었다. 여러 이해관계로 묶여 있어 일을 할 뿐, 정작 그 일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 종일 그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니 일의 능률은 최상이었다. 거기에다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미리 미리 제거하여 주셨다. 작업은 예상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두 개의 십자가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처음에 십자가를 두 개 만드는 계획은 우리 팀 다음에 오는 남성 2팀에게 한 개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 현지 처소교회의 공간에 비하여 너무 크게 제작되었다. 그래서 2팀에 양해를 구하고 두 번째 것을 조금 작게 만들어 처소교회 용으로 제공

하고, 크게 만들어 진 건 한국인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진료병원인 프놈펜의 헤브론 병원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거기 선교사님은 우리 생각을 동의해 주지 않고 두 개 모두 자신에게 달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 둘 다 김 선교사에게 드리고 왔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가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생긴 일이었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었다. 다만 헤브론 병원에는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 기증하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되었다.

함께한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드는 특별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짧은 기간 동안 두 개의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기적적으로 완수한 우리 쓰롤란 팀에 감사하다. 오로지 신앙으로 똘똘 뭉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제작 일도 하면서 팀의 살림도 하여야 했는데, 지면을 통해 소중한 팀원들을 소개하고 싶다.

팀장이라기보다는 팀종으로 우리들을 성심껏 섬기며 모든 과정을 현명하게 이끈 김성민 교수(한양대), 드릴을 손에서 놓지 않아 별명이 '정드릴'이 된 정중모 열림원 사장, '황톱'이라는 별명 얻은 톱의 달인 황경환 교수(경상대), 서기를 맡아 녹음기처럼 빠짐없이 대화를 노트북에 기록한 김승욱 교수(중앙대), 캄보디아가 초행인데도 먹거리 조달에 상상을 초월하게 탁월하였던 홍명식 사까나야 사장, 사진 촬영과 작도, 정탐 등에 뛰어났던 팔방미인 이영달 교수, 나중에 부인에게 들으니 집에선 못도 박을 줄 모른다던데 건축회사 사장 체면 때문에 작업에 능숙한 척하며 발벗고 나섰던 우근태 사장, 실제로 손재주가 뛰어나 작업의 많은 부분을 해낸 진짜 테크니션 김성현 형제(기업 컨설팅),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을 도맡아 한 극작가 이상민 등.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캄보디아에 멋진 십자가를 세우고 돌아왔다. 그 동안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인지 여럿이 함께함으로 은혜가 내렸는지 이전의 만들었던 어느 십자가보다 월등히 좋은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만들어 놓고 보니 십자가의 형태가 캄보디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래쪽의 36개의 조각으로 된 암벽 위에 십자가가 서있는 형상인데, 바위처럼 험난한 현대사의 질곡을 겪은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 십자가가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정표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캄보디아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상징이 되리라 믿는다.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